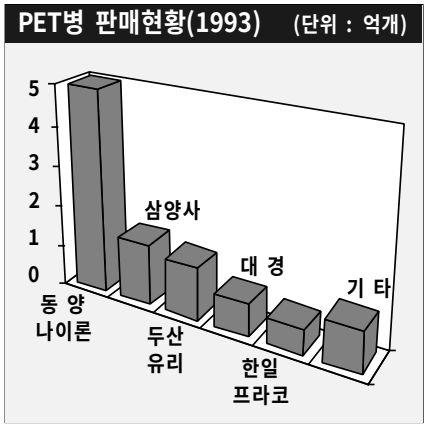
PET병 공급과잉 심화

가동률 50%선 … 과잉률 100% 초과로 재편 활발

극심한 공급과잉 현상으로 PET병 생산 가동률이 50%선에 머물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PET병 국내 수요는 93년 기준 10억개에 이르는데 반해 국내 공급능력은 동양나이론 10억개 ,삼양사 5억개 등 21억개에 달해 100%이상의 공급과잉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92년대비 600%가 증가한 것으로 각 기업이 폴리에스터 중합설비의 확대속에 비섬유분야의 강화와 향후 수요신장을 기대하고 증설을 완료했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 수출은 미미한 실정으로 있어 당분간 가동률 저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상황에서 채산성 악화로 두산유리는 생산량을 감축하고 삼광유리는 삼양사에 흡수되는 한편 일화가 롯데알루미늄으로 흡수되는등 시장재편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 생수병시장은 경합이 치열한 반면 청량음료와 세제용기, 간장병 등은 각기업이 나름대로 절대적인 점유률을 보이고 있어 향후 생수병 시장에서의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동양나이론은 92년 진천공장의 월 720만개 규모의 공장 증설로 연간 10억개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93년 5억개를 판매해 시장점유율이 50%에 이르고 있다. 동양나이론은 전분야에 걸쳐 생산, 판매하고 있는데 향후 증설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삼양사는 대전공장의 증설로 월 4000만개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소주병 부문에서 국내 시장의 60%를 점유하는 등 청량음료 부문에 사업을 강화하고 있어 점유률이 93년 10%에서 소폭 신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두산유리는 생산능력이 월2000만개에서 음성공장 증설로 2300만개에 이르고 있으며 대경은 1050만개에서 1260만개로 증설하고, 한일프라콘은 1000만개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수출은 동남아지역에 소량이 이루어지고 있어 공급과잉을 해소하기에는 미미한 수준이다.
한편, PET칩 생산도 각기업에서 크게 증설하고 있어 공급과잉으로 상당부분을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데 PET병 신장률이 93년에는 92년대비 소폭 하락한데 반해 94년에는 92년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여 PET칩 수요도 신장할 것으로 보인다.
PET칩 생산능력은 삼양사 일산120톤,고려합섬 90톤,제일합섬 90톤 등 520톤에서 94년말에는 각기업이 증설를 추진하고 있어 670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화학저널 1994/6/6>